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5. 28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친환경연구과장	고순보	☎ 760-7350
		업무담당자	오민아	☎ 760-7353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‘대표필지 토양검정’ 으로 제주 농경지 비옥도 관리

- 제주 농경지 2,400개 필지 토양 데이터 구축...휴토람 DB 활용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지역별 토양 양분 불균형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‘읍·면·동별 대표필지 토양검정사업’을 본격 추진한다.
- 제주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지형적 특성과 다양한 재배 작물 및 경작 방식으로 인해 지역마다 농경지의 양분 불균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.
 -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농경지의 양분 분포와 비옥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에 나선다.
- 농업기술원은 도내 12개 읍·면·동 농경지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800개 지점을 정밀 조사한다. 특히 3년을 주기로 같은 지역을 반복 측정하는 시계열 모니터링을 도입해 토양 비옥도의 변화 흐름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.
 - 조사 대상은 밭, 과수원, 시설재배지 등 재배 유형과 평탄지·비평탄지 등 지형 특성을 골고루 반영해 각 지역의 토양 화학성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.
 - 주요 분석 항목은 △토양산도(pH) △전기전도도(EC) △유효인산 △유기물 함량 △교환성 양이온(칼슘, 칼륨, 마그네슘) 등 총 7개다.

- 분석된 데이터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‘흙토람’에 실시간으로 구축된다.
 - 또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과 연계돼 향후 토양개량제 공급량 산정 등 주요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- 축적된 데이터는 농가 맞춤형 비료 처방에 적극 활용된다.
 - 최근 5년 이내에 토양검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밭이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근 대표필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비료사용 처방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.
 - 이를 통해 농가는 작물에 꼭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쓰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.

- 오민아 농업연구사는 “대표필지 토양검정을 통해 제주 농경지의 지역별 양분 상태와 비옥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”며 “적정한 양분 관리를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